

수상한 녀석들

한경대학교 최성수, 김진수, 정지수

전국 대학생 축산물 이력정보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국 대학생 축산물 이력정보(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3수' 팀의 최성수, 김진수, 정지수입니다. 저희 3명의 이름만 봐도 왜 팀명이 3수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팀명을 보다 보면 뭔가 살짝 불길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팀명을 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대회 3번 나가면 그때 돼서야 상 받겠는데!"라는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5월쯤 학교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이번 대회 포스터를 보고 대회 참가를 위해 모인 저희 3명. 학교생활과 병행함은 물론 집이 멀리 있는 조원도 있었기에 팀명을 정하는 것부터 주제를 정하기까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에 '데이터 분석' 부문이 아닌 '제도 및 콘텐츠 개선' 부문으로 방향을 잡아 회의를 하고 주제 선정 및 신청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거듭할수록 이 부문에서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 것 같다는 의견과 동시에 데이터 분석이라면 그래도 자신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종강을 하면서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신청서 제출 기한 내 신청서 작성을 위해 메신저로 또 만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회를 준비할지 또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지 고민했습니다. 동시에 교수님께 지문을 구하기도 하면서 방향이지만 방향이 아닌 것만 같은 방향을 보내며 대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공모부문 변경이라는 커다란 난관을 극복해 내고 무사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8월 5일까지 접수해야 하는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신청서 때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회의하고 찾아보며 분석해야 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서 제공해주 이력정보 자료를 분석함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 통계청,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한국종축개량협회, 여러 가축시장 등 수많은 축산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며 다방면으로 검색해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획득한 자료들을 가지고 엑셀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고 표를 만들어 1차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리해 제안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7월이 지났더군요.

그렇게 제안서를 작성해 이슬아슬하게 기한에 맞춰 제출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출한 제안서가 통과되어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번엔 발표 PPT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저희의 열정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제안서의 자료를 가독성 있게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고 표들도 좀 더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만들었던 PPT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느새 발표 날짜는 다가왔고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세종시에 있는 축평원으로 향해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금상'이라는 너무나도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 타자하고 있는 지금도 놀람기만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우린 꼭 우승하자'고 서로서로 격려했지만 실마 정말로 우승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고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지경이니까요.(하하)

다들 아직 학생이고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모두에게 말해 주고 싶네요. 뿐만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흔쾌히 도와주신 한경대학교 생명공학과 공홍식 교수님,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들 모두에게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3명이서만 했다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많이 의지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에게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대회를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력제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축산과 관련된 여러 지식, 소식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 관심도 더욱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신없고 바빴지만 알차게 열정 넘치는 방학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것들, 느낀 것들, 배운 것들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축평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